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3주일 평신도 주일
제35권 51호(나해) 2015년 11월15일

[묵상]



△
늘
깨
어
기
도
하
라
▽

평신도(平信徒)는 결코 평범(平凡)한 신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보통 신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사명 (예언직, 사제직, 왕직) 에 참여하는 신자입니다.

평신도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성인이 될 수 없다거나,
별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주일 미사만 봉헌하면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반천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매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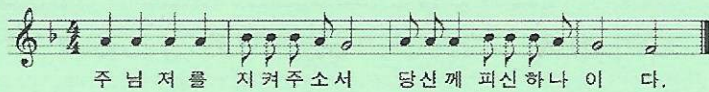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 김귀영 & 권순기, 권순봉 요안나, 이용식 베드로
	(생) 최병수, 성영님엘리사벳 & 성호재 시몬 & 유진 로렌스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종수 마틴, 고준희 제임스, 김진성 루스 & 김수정 발바라, 최병덕 바오로 & 최효선 안젤라, 홍현태 요셉, 변세연 대견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사범 로벨토 & 이안드레아 & 조마리아, 김중환 야고보, 김완태 다미아노, 노정순 베로니카, 후버트 최, 문지현 아네스, 연옥 영혼, 먼지간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모든 낙태 아이들의 영혼, 현시영 요셉, 이덕철 루카와 그의 조상들, 최부금 로사
	(생) 서성용 베드로, 안연숙 루피나 가정, 황윤재 베드로, 조이박, 김현숙 벨라타 & 우영희 엘리사벳 & 방미숙 마리아, 김리사 엘리사벳 & 김조셉 마리아요셉, 최솔 체칠리아, 최기남 야고보&최옥희 테레사, 권영환프란치스코&최효진 베로니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다니엘(Daniel) 12,1-3

화답송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
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0,11-14.18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복음 마르코 (Mark) 13,24-32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1-1. 교회 창설의 배경

중국에 온 선교사들은 포교에 앞서 중국의 말과 풍습
을 깊이 연구하고,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천주교 신앙
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대표 종교인 유교를 연구
하였고, 그 결과 천주교 신앙은 유교의 부족한 점을 보충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를 보유론(補儒
論)이라 한다. 「천주실의」는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고 천
주교 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의 관계를 밝히고, 중국 지식
인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알리는 데에 큰 구실을 하였다.
그 밖에 17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선교사가 천주교 신앙
을 소개하는 많은 종류의 책을 저술하였다.

당시 조선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
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선 왕조 조정에서는 해마다 정
기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 사신 편을 통해
서 「천주실의」를 비롯한 한문 서학서(漢文西學書)들이
조선에 전래되었는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거의 150년 넘
게 천주교 서적들을 읽고 그 내용을 검토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주교 서적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이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식인들도 점차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천주교를 새로운 인생 철학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천주교
를 새롭고 참다운 종교로 믿고 실천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중국에 전파된 천주교를 통하여 또한 중국에서 간
행된 한문 서학서를 읽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워지게 된 외적 요인이 되
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해
있던 대내외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의 힘
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수용 초
기부터 신앙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양상을 드러내며 크
게 발전해 나간다.

조선 후기 사회의 이러한 실학적 분위기는 지식인들이
천주교 신앙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으
나, 1791년에 일어난 조상 제사 문제로 상당수의 유교
지식인들이 천주교 신앙을 포기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
는데, 실학 사상은 천주교를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
었지만, 천주교를 전파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기가 어
려웠다. 교회 창설 직후부터 몇몇 신자들은 천주교를 반
(反)유교적 신조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유학의 한 갈래이던 실학 사상보다는 당시 사
회 변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확산되어 갔다. 사실
천주교 신앙은 창설 직후부터 민중 종교 운동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 계속 >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91	182	346
봉헌	255	270	261
성체	291	300	300
파견	418	222	245

하느님의 비망록

1. “책에 쓰인 이들”(제1독서: 다니 12,1)

이른바 비망록(備忘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 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등장하는 ‘책’을 ‘하느님의 비망록’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이 책 안에 ‘현명한 이들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이 적혀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할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난달 어느 평일 미사 강론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비망록에 악행을 저지른 이들의 이름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루카 16,19-31)

2. “거룩해지는 이들”(제2독서: 히브 10,14)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자유지의론」에서 “그대가 잘 성찰한다면, 그대가 최고로 존재하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만큼 그대는 불행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신자들을 깨우쳐주십니다. 사실 오늘 제2독서에서 보듯이, 우리의 구원은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가 ‘지치거나 광신주의(狂信主意)에 빠지지 않고’(「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35항 참조), 주님의 구원사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3. “‘사람의 아들’이 선택한 이들”(복음: 마르 13,27)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도래할 마지막 날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주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아들’에게 ‘선택된 이들’이 누리게 될 삶에 대한 본질적인 언급입니다. 즉,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오시는 ‘사람의 아들’이 그들에게 ‘구원자’이시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마르 13,31) 희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녀 에디트 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 비울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비움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4. 교형 자매 여러분,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오늘 교회는 복음이 지닌 구원 진리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고 변모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일치와 정의와 평화 안에서 인류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풍요로움을 보여 주는 평신도들의 믿음직한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라며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인 모든 평신도가 교황님의 당부처럼 주님의 복음으로 성화(聖化)되어 ‘하느님의 비망록’에 기록되는 은총을 누리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정연정 신부/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모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제34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 일시: 11월26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준비물: 불우이웃돕기 1인 1캔 푸드 가져오기
- 점심: 본당 제공
- 행사당일 오전 10시까지의 공원 입장 무료, 이후는 본인 부담으로 차량 당 \$8.00 입니다.(Carpool 을 부탁드립니다.)
- 2부 행사: 성당 별 장기자랑
시상: 1등(\$500), 2등(\$300), 3등(\$200)
- 경품(Raffle)추첨: 대상(한국왕복 비행기표 또는 \$1000), 1등(최신형 Cuckoo 압력밥솥), 2등(40인치 스마트 TV), 3등(Tablet)
- 장소: 엘 도라도 팍 El Dorado Park, East

75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

- 미사집전 : Kevin Vann 주교님(오렌지 교구)
- 주관 :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이날 본당 평일 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요셉회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5일)11시 미사 후
- 장소 : 강당
- 당일 특별 음식이 준비되어있으며, 영화관람(사도)도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 (310)780-278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15일 * 하버/카슨 : 수제미국 (\$3),
* 주일학교 : 커리 라이스 (6학년)
- 11월 22일 * PV1반 : 북어국 (\$3),
* 주일학교 : 밀볼 핫도그 (5학년)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강숙경 고천용 구자운 김교복 김기정 김성택 김옥보 김옥찬 김원모 김정희 김주량 김현숙 남명자 노혜숙 박영희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박혜정 배기엽 배태임 성낙호 안민수 우영희 원건희 윤희동 이경수 이귀분 이미예 이민상 이상석 이원형 이인석 이일길 장영우 정동호 정인욱 정훈모 조소영 주대중 최의수 홍인표 황철수 이크리스 익명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구자운 김교복 김기정 김옥보 김원모 김주량 김현숙 남명자 노혜숙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성낙호 안민수 원건희 윤희동 이경수 이귀분 이미예 이민상 이상석 이인석 이일길 장영우 정동호 정훈모 조소영 주대중 이크리스 익명
	합계:\$4,835		합계 : \$2,640
주일미사 현금 :\$2,522 감사헌금: \$200(차정애, 안민수)		성물부 이익금: \$ 262(총수입 \$465-성물구입\$203)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안내

- 일시 : 11월15일 (주일) 낮 1시~5시
11월16일(월) 저녁 6시~10시
양일중 하루를 택하여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 강의 후 1시간실습
이후 1달 이내 10회 실습
- 장소 : 성 아그네스 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 CA 90007
- 문의 : 사무실 ☎(323)731-4433

◆LA 콜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공 테레사 수녀
☎213-389-7760 / 213-785-1147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11월 21일 작은예수회 LA 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행사 홍보 협조 요청

- 행사 명: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 시 : 2015년 11월 21일 (셋째 토요일)
- 공소예절 : 11시
- 식 사 : 정오
- 장 소: 작은 예수회 LA분원
(올림픽과 실로암 약국이 있는 아라파호 골목길)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박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배태임 안나 991-4838 11/10(화)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정웅 요한 11/21(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11/20 (금) 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대우 비오 378-8763 11/14(토)오후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손석 스테파노 11/14 (토) 6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로사 11/14(토)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최옥희 테레사 11/20(금) 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11/17(화) 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송 미카엘라 850-2822 1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정병욱울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기호 스테파노 11/9(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김윤진 가타리나 749-3151 11/7 (토) 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미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1/13(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11/20 (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명숙 루실라 11/7(토)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11/10 (화) 10시30분

이번주 단체 모임

회장단 회의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 회의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36> 김강이 시몬 (1765?~1815년)

‘여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강이(金鋼伊, 시몬)는 충청도 서산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장성한 뒤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성격이 고상하고 용맹한 데다가 재산도 많았다. 그러나 입교한 뒤에는 재산과 종들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아우인 김창귀(타대오)의 가족과 함께 전라도 고산 땅에 가서 살았다.

1795년 초여름 주문모(야고보) 신부가 고산을 방문하자, 시몬은 여러 차례 신부의 처소로 가서 성사를 받고 교리를 배웠다. 또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지도층 신자로 지목되어 1년 동안을 피신해 다녀야만 하였다. 이때 그의 아내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끝에 많은 돈을 쓰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박해가 끝난 뒤 시몬은 등짐장사를 하면서 이곳 저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러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장사를 그만두고 경상도 진보의 머루산(현 경북 영양군 석포면 포산동)으로 들어가 교우촌을 일구었다. 이후에도 그는 다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강원도 울진에 가서 정착하였다.

1815년 경상도에서 올해 박해가 일어난 뒤, 김강이 시몬은 옛 하인의 밑고로 아우 타대오와 조카 김사건(안드레아)과 함께 체포되어 경상도 안동에 수감되었다. 이때 시몬은 용감하게 관장 앞으로 나아가 포졸들이 빼앗은 자신의 재물을 돌려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그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주었다. 보기 드문 일이었다. 시몬은 다시 찾은 재물들을 굶주리고 있는 옥중 교우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시몬은 안동에서 여러 차례 문초를 받았지만 깨끗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5월에는 아우와 함께 자신이 살던 강원도의 수부인 원주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도 다시 문초와 형벌은 이어졌고, 그러면서 그의 아우는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고 유배 형을 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다.

시몬이 보여준 열렬한 신앙과 인내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러자 감사는 결국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형을 선고한 뒤, 임금의 윤허를 받기 위해 그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때 원주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김강이는 비밀리에 신자들에게 천주교 서적과 소식을 전해왔으며, 여러 해 동안 천주교 교리를 외우고 익혀서 온몸으

로 깊이 빠졌습니다. 이에 합당한 법률을 시행토록 허락해 주십시오.”

임금은 즉시 사형 집행을 윤허하였다. 그때 시몬은 이미 형벌로 인한 상처가 아주 심한 데다가 옥중 생활에서 얻은 이질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 결과 김강이는 임금의 윤허가 내려오기도 전에 옥사하고 말았으니, 그때가 1815년 12월 5일(음력 11월 5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 이상이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교리상식]

미사 때 취하는 동작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미사에 참례하면 서기, 앉기, 무릎 꿇기 등 다양한 동작을 취합니다. 무언가를 잘 들으려면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자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거나 사제가 강론을 하는 경우에는 앉습니다. 사제가 복음을 봉독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더 잘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 불러 주세요.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기는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아주 존경할 때 취합니다.

◆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열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영영 올겠다

-정 채봉 시-

[기도묵상]

사람아, 너는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청해야만 하는 불쌍한 존재다.

-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판관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생활이 편해지자 믿음의 생활도 점차 나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과거를 잘 잊어버리니 말입니다. 세력이 강해진 미디안 족이 갑자기 쳐들어와 이스라엘사람들의 곡식과 양과 소, 염소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때, 주님의 천사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 무엇이냐 말했나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6,1-22

기드온은 자신이 요구한 기적을 체험하자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셨나요? 그리고 기드온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느님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6,23-40

미디안 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일대가 전쟁의 위기에 휩싸이자, 많은 수의 이스라엘 장병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소집된 장병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사들을 추리고 추려 마지막 시험에 통과한 장병의 숫자는 삼백 명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적은 장병숫자에 기드온은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수의 장병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과연 미디안 족과의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 전투 방법이 재미있게 묘사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기 7,1-25

판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각 부족에 의한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엘리야, 사무엘 시대까지 (기원전 12~11세기), 하느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민족의 침입에서 구해냈고, 평화 시기에는 최고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척 겁이 났고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의지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능력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극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판관 6,23)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사들이 (),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 놓고, ‘()’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판관7,2)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지역활동을 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미리암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요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